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 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102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 102:12-13]

12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편 102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화자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탄식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낙담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좌절하고 낙망해야 할 때에 다시 일어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끝까지 일어서 걸어가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지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처음 화자의 시선은 자기 자신, 자기가 처한 상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탄식과 눈물이 나왔죠.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너져 내린 눈 앞의 상황, 황폐해진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화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기 안에는 없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어둠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점차 자신과,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어두움이 환한 빛으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화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화자는 12절, 그리고 27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화자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이 화자의 소망이 된 것이죠. 화자가 낙담과 절망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계시실 것을 본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현재의 상황과 환경, 자기의 처지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현재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이미 미래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화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황폐해지고, 비참해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향해 금홍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다. 그들의 시선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는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바라보며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부활한 이들과처럼,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안과 소망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으로 죽어 재가 되는 것이 실재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기쁨과 평안이 실재였던 것이죠.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 낙담과 좌절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재가 된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은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당신에게 있나요?
2.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었던 은혜의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우리 가족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정하고, 인쇄(기록)하여 잘보이는 곳에 붙여놓기